

# The perpetuation of the succession of the K-Culture drama “The Lonely and Splendid God-Goblin” and the issue of deification of capital

Kang, Sung-ae

Instructor, Namseoul University, Korea

basabana@hanmail.net

## Abstract

**Objectives** The K-Culture drama “The Lonely and Splendid God-Goblin” is mainly evaluated as a work dealing with romantic love using fantasy genre grammar. However, this drama does not only deal with love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reveals the permanence of class and the deification of capital through the motifs of “reincarnation/ immortality” and “superpow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revealed in this drama and the capitalist-friendly character.

**Methods** The goblin in the drama is a divine being with superpowers. His superpower is often used as a device to show off the power of capital. The place where goblins exercise their superpowers is the rooftop of a large company building they own. Without capital, Kim Shin experiences a lot of inconvenience in living a wonderful life as a transcendent being. As such, in this drama, superpowers and capital are closely connected.

**Conclusions** The main character of the drama, Kim Shin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is immortalized throughout its millennium history. However, all the characters except the goblin have the limit of being reincarnated. This contrasting aspect of life becomes a metaphor for the class gap as soon as the goblin is revealed to be a capitalist.

In the drama, the family of servants serves the goblin, a great-grandchild, as its owner. The loyalty of those who have followed generations is warmly described in the name of “hyo.” Through this narrative, the drama cleverly glorifies class inequality.

Viewers unconsciously naturally accept that the class is eternal and that the ability of capital is great, while enjoying the fantasy elements of the drama. In the end,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can be said to be a TV drama that glorifies social inequality and has a capitalist-friendly character.

**Keywords** K-culture, TV Drama, Capital, Grade, Perpetuity, The Lonely and Splendid God-Goblin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0.312.001](https://doi.org/10.23159/IJKC.2023.10.312.001)

Received: Sep. 20. 2023 ; Reviewed: Oct. 10. 2023 ; Accepted: Oct.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K-Culture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계승의 영속성과 자본의 신격화 문제

강성애

---

### 목 차

1. 서론
  2. 불멸 대 환생 구도가 내포하고 있는 계급의식
  3. 영속성으로 나타나는 계급의 공고함
  4. 자본력의 과시와 자본의 신격화
  5. 결론
- 

### 1. 서론

최근 판타지 TV 드라마들이 늘어나면서 초능력자나 외계인 같은 신기한 대상들이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들 남자 주인공이 초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자본력도 많다는 것이다. 돈 많은 초능력자 캐릭터들은 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된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수 있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sup>1</sup>

이런 비판은 할리우드의 슈퍼 히어로물에도 적용되는데, 예



<사진1> 드라마 도깨비  
(출처: CJ ENM)

---

1 최지운. (2017). 로맨스드라마 속 남자주인공의 재력 획득 방법 분류 및 함의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3, 33-54.

를 들어 배트맨과 아이언맨의 초능력은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슈퍼히어로로 불린다.<sup>2</sup> 이 논문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TV 드라마에 나타난 자본과 초능력을 모두 갖춘 남자 주인공에 주목하고자 한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초능력자인 자본가로 설정될 때 그 드라마는 자본을 향한 대중의 물신숭배(物神崇拜: fetishism)를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sup>3</sup>(이하 <도깨비>로 약칭한다.)가 있다. 이 드라마에는 초능력과 자본의 결합 양상이 작품 전반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특히 과거 신분사회와 현재 계급사회를 연결하면서 계승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신숭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도깨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TV 드라마는 지배적인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sup>4</sup> 이러한 관점에서 TV 드라마 <도깨비>는 문제적이다. 이 드라마가 사용하고 있는 불멸과 환생 모티브는 부(富)의 소유에 따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자본가의 초능력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연결된다.

<도깨비>는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다. 문화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많은 연구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 나타난 자본과 계급 문제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은 ‘환생/불멸’과 ‘초능력’ 모티브에 집중하여 판타지 TV 드라마 <도깨비>에 나타난 계승의 연속성과 자본의 신격화를 고찰할 것이다.

---

2 박민홍. (2019).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데올로기 연구: 영웅주의와 아메리카니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37.

3 <도깨비>, 김은숙 극본, 이응복 연출, tvN, 총 16부작, 2016.12.2~2017.1.21.

4 로버트 알렌 (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220.

5 <도깨비>는 마지막 회에서 시청률 20%(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하며 종영했다. 이는 케이블 채널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 김향미 (2017). 드라마 ‘도깨비’ 시청률 20.5% 종영: 우리가 사랑한 도깨비. 경향신문. 중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도깨비’는 일본에서 TV 방영을 시작하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아울러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의 시청자를 만나고 있고, 유럽 지역에 소개되고 있다. 해외의 드라마 팬들은 독특한 설정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주인공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백솔미 (2017). tvN 드라마 ‘도깨비’, 미주유럽서도 인기. 스포츠동아.

## 2. 불멸 대 환생 구도가 내포하고 있는 계급의식

〈도깨비〉의 등장인물들은 불멸<sup>6</sup>(不滅)하거나 환생<sup>7</sup>(還生)한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불멸하는 캐릭터는 도깨비인 남자 주인공 김신(공유 분)이 유일하다. 그는 939년을 늙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혼자 살아갈 운명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다. 자본가 한 명만 불멸하고 다른 사람들은 환생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드라마가 사용하고 있는 ‘불멸/환생’ 모티브가 계급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계급의 사전적 개념은 ‘지위나 관직의 단계를 말하거나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 간단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있다. 마르크스는 계급을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와 그렇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두 가지로 나누었다.<sup>8</sup> 또한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면서 어느 시기에나 사회는 여러 계층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봉건 사회가 몰락하면서 현대 시민 사회가 계급을 폐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계급들로 대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sup>9</sup>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현재 많이 복잡해진 신자본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그의 계급 개념은 중간계급의 위치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의 이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 학자에는 라이트가 있다. 라이트는 계급을 크게 생산수단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나누고, 생산수단 소유자를 또다시 소유자가 일을 하는지의 여부, 노동자를 고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분화했다. 자신은 일하지 않고 남을 고용할 만큼 자본이 충분한 계급을 부르주아로, 자신도 일해야 하나 남을 고용할 만큼 자본이 충분한 계급을 소고용주로 나누었다. 남을 고용할 수 없고 자신이 일해야 할 정도의 자본이 있는 계급은 프티 부르주아로 명명했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급을 임금 생활자라 칭했다.<sup>10</sup> 이 논문은 라이트의

6 불멸(不滅)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예로부터 많은 종교와 신화, 시나 소설 속에서 상상적으로 충족되어 왔다. 특히 『드라큘라』는 불사자를 다룬 유명한 소설 중 하나로 이후 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TV 드라마에 뱀파이어도 아닌데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7 환생은 설화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해 온 모티브이다. 특히 환생 구조를 갖고 있는 고소설들은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잠시 인간계에 환생하여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8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진우 옮김 (2010). 공산당 선언. 서울: 책세상, 16.

9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진우 옮김 (2010). 16.

기준에 따라 <도깨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계급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의 세계관 내에서 모든 인생들에겐 총 네 번의 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생에선 고려 왕이었던 왕여는 두 번째 생에서는 저승사자(이동욱 분)로 환생했다. 저승사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차집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대접하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상조 회사 직원이 하는 일처럼 그려진다. 전생(前生)에는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지만 두 번째 생에서는 사람들의 죽음을 도우며 살아가는 임금 생활자가 된 것이다. 세 번째 저승사자는 다시 환생해서 후생(後生)에는 경찰이 되는데, 경찰 역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임금 생활로 볼 수 있다.



<사진2> 드라마 도깨비의 조연 (출처: CJ ENM)

왕여의 아내이자 김신의 여동생이었던 김선은 씨니(유이나 분)로 환생했다. 환생한 후에는 고아로 살다가 치킨 집 사장이 됐다. 전생에는 고려의 왕비로 지배층이었으나 현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두고 치킨 집을 운영하는 소고용주일 뿐이다.<sup>11</sup> 씨니는 다시 환생해서는 연예인이 된다. 연예인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금 생활자이다.

이번 생이 첫 인생인 도깨비 신부 지은탁(김고은 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라디오 PD가 된다. 라디오 PD 역시 임금 생활자 중 한 명이다. 은탁은 환생해서 여고생이 되는데, 그가 어떤 계급으로 살아갈지는 알 수 없다.

김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 김우식은 전생에 김신의 충신이었다. 김신은 우식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고, 우식은 김신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결국 우식은 전생에서나 현생에서나 김신을 상관으로 모시게 된다. 현재 김신의 종인 유덕화 역시 전생에 김신의 종이였다.

김신은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 검을 뽑으면 무(無)로 돌아갈 운명이었다. 그러나 신부가 검을 뽑은 후에도 다시 소생하게 되면서 김신이 소멸할 방법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한

10 에릭 올린 라이트, 이한 옮김 (2005). 계급론. 서울: 한울, 131.

11 에릭 올린 라이트, 이한 옮김 (2005). 129-130.



〈사진3〉 드라마 도깨비의 금선과 덕화 (출처: CJ ENM)

불사자(不死者)가 된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김신은 앞으로도 지배계급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김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환생 후에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내려가거나 피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머문다. 설화나 고소설에서 환생은 주로 이전 생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도깨비〉에서의 환생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멸 모티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이를 통해 자본가인 ‘김신’이라는 캐릭터가 부각된다.

### 3. 영속성으로 나타나는 계급의 공고함

900년이 넘도록 지배층으로 살아온 김신 옆에는 항상 그를 보필하는 종이 있는데 그는 봉건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봉건주의란 상위 계층에 있는 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하위 계층에 있는 자를 종속시키고 다스리는 방식을 말한다. 봉건주의는 전근대 시대의 산물이어서 시대물이 아닌 이상 TV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깨비〉는 봉건주의가 민주주의 사회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체제를 넘어서 모든 개인이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는 인간관계의 양식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원칙적’으로 누구도 다른 이보다 우월하지 않다.<sup>12</sup> 하지만 〈도깨비〉에서 김신은 유씨 가문에게 항상 섬김을 받는 우월한 존재이다. 그리고 유씨 가문과 김신의 평등하지 않은 봉건적 관계는 신의와 충정으로

미화된다.

김신이 고려 시대의 상장군이었을 당시 그를 섬기던 유 씨 성을 가진 종은 죽기 직전 자신의 손자에게 김신을 섬기라는 유언을 남기고, 손자인 유금선은 그 유언을 받들어 김신의 종이 된다.

유금선    절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셨습니다.

— 〈도깨비〉 1화

유금선은 자신이 굶거나 뺏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김신을 보살폈다. 혈혈단신(子子單身)으로 김신을 따라 낫선 캐나다에 간 금선은 오직 김신을 위해 존재하며 평생 그의 옆에서 살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금선이 900년 이후 유덕화(육성재 분)로 환생한 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김신        네가 덕화구나. 나는 그대의 삼촌이었다가 형제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손자가 될 사람이다. 잘 부탁한다. 한데 넌, 고려에서 태어나 이국땅에 잠든 이가 있었다. 그대의 먼 조상이다.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

— 〈도깨비〉 1화

덕화        바닥부터 일 잘 배울게. 바둑도 배울게. 그래서 삼촌의 형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 되어볼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 〈도깨비〉 12화

김신은 종들의 ‘삼촌이었다가 형제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손자’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유 씨 가문이 대대로 김신의 조카, 형제,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은 덕화에게 남은 것은 김신을 잘 보필하라는 할아버지의 유언뿐이다. 유언은 그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정언명령(定言命命)으로 작용한다. 이는 과거 금선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이 작용했던 방식과 완벽히 일치한다.

---

12 문강형준 (2011). 파국의 지형학. 서울: 자음과 모음, 148-149.

이처럼 <도깨비>에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은 여전히 고려 시대의 종이고, 김신은 고려 시대의 장군인 것처럼 봉건주의 세계관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형태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심 가득한 손자의 철든 모습으로 무마되는데 이 배경에는 다른 가족들의 철저한 소거(消去)가 있었다. 김신은 금선이 죽자 금선을 자신이 소유한 집 근처 언덕에 묻고 그 옆에 금선의 손자와 또 그 손자의 손자를 묻는데 여기에서 묻힌 자들의 다른 가족들은 없다.

유금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캐나다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금선이의 아내와 아들 혹은 딸, 며느리 혹은 사위는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 씨 가문 전체가 김신의 종복이라고 했지만 김신은 종복의 손자의 손자만을 기릴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의 기억에 없다. 신에게 ‘모든 죽음이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별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 이 드라마의 기만적인 태도가 있다.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손자’만을 남겨두고 다른 가족들을 극화시키지 않았고 이를 통해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각별하게 만들며 할아버지의 유언을 묵숨처럼 받들게 만들었다.

알튀세르는 “노동력의 재생산이 노동력의 질적 자질의 재생산을 요함과 동시에, 기존 질서의 존중 규칙을 따르는 복종의 재생산을 요구한다.”<sup>13</sup>라고 하면서 가족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칭한 바 있다. 불멸(不滅) 하는 김신에게는 자신을 섬겨 줄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즉, 자신의 자본을 계속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절대적인 복종의 재생산이 필요했다. 자본은 일정 금액의 돈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본의 특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sup>14</sup>는 데 있다. 김신에게 유 씨 가문이 맡고 있는 천우 기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자본’이 된다. <도깨비>는 천우 기업이 불멸하는 김신을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 증식을 위한 복종의 재생산의 도구로 가족 이데올로기가 사용되었다.

유신우는 “자신이 남긴 모든 것이 김신의 것”이라고 하고, 김신은 “이 회사가 덕화의 것이 아닐 리 없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대사를 통해 <도깨비>가 회사를 한 개인의 소유나 가문의 소유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형 재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경영 기업에서 이사회 경영 법인으로 소유지배 구조를 전환하는 서양의 경우와 다르게

13 루이 알튀세르 (2007). 재생산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97.

14 칼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2012). 자본론 I. 서울: 비봉, 196-198.





〈사진4〉 드라마 도깨비의 재벌 김신 (출처: CJ ENM)

덕화의 소개처럼 김신이 소유하고 있는 천우그룹은 가구, 호텔, 무역, 선박, 정유, 건설 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김신의 소유다. 이토록 부유한 김신은 한국에서 프랑스 귀족처럼 살아간다. 집 내부에는 촛대와 샹들리에, 초상화, 그림 등이 걸려있고 김신은 1600년대 프랑스 귀족들이 사용했던 접시로 밥을 먹는다. 덕화가 김신이 루이 14세 때 직접 산 접시임을 알려 주기도 한다.

김신은 과거부터 항상 부유하게 살아왔으며 지금도 대기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로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특징을 미뤄 봤을 때 김신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앞으로도 영원히 기업의 주인으로 불멸한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자본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도깨비 김신이 자본/자본가를 상징한다면 유 씨 가문은 노동자를 의미한다. 유 씨 가문은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회사사가 김신의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유 씨 가문은 여전히 김신의 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덕화는 회사에서도, 김신의 집에서도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그려진다. 자본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은 오직 노동자의 몫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본가를 신처럼, 혹은 주인으로 여기고 모셔야 한다는 것이 이 드라마가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김신을 자본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보고 그의 행위들을 분석하면 이 드라마가 자본을 얼마나 신격화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녁 김신은 자신의 ‘회사’ 옥상 위에 설치된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 간판 위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이렇게 회사의 로고가 전면에 나오는 것은



자본의 힘으로 신이 행해야 할 의무를 한다는 것이 바로 자본을 신격화하고 있는 예 중의 하나이다. <도깨비>는 자본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드라마에는 잠시나마 김신이 자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순간이 있다. 이때 도깨비는 대단한 신력을 가졌음에도 아무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 드라마는 아무리 도깨비여도 살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도깨비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계속 인간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역시 자본에서 나온다. 극 중 도깨비가 자신의 신력으로 많은 자동차들을 박살 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도깨비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언론에 이 사건이 더 퍼져나가지 않게 막았다. 대기업의 힘이 아니고는 이미 돌고 있는 화제의 영상을 빠르고 쉽게 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차가 부서진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 주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 드라마는 겉으로는 운명적인 사랑과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계급을 정당화시키고, 계급 간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영원성과 위대함을 화려한 영상미로 미화시켰다.

## 5. 결론

이 논문은 <도깨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판타지 TV 드라마에 나타난 계급의 영속성과 자본의 신격화를 고찰하였다.

<도깨비>에서 도깨비 김신은 항상 지배층이었고 부유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김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불멸하지 않으며 환생한 후에 지배층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 이를 통해 김신의 불멸과 자본력이 부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도깨비>에서는 봉건주의가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는 것으로 그려졌다. 유 씨 가문이 대대손손 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심 가득한 손자의 철든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신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자본/자본가를 상징하며 유 씨 가문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본은 절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는 자본가를 신, 혹은 주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신의 회사가 자본을 상징한다고 할 때 회사는 초능력(신력)의 공간과 겹쳐져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드라마가 친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가가의 이미지를 신격화하는 것을 통해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다.

〈도깨비〉에서 초능력과 자본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김신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자본과 연결되어 있고, 김신이 자본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의 신력은 아무 힘도 없었다. 도깨비가 마음껏 초능력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역시 기업의 도움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TV 드라마 〈도깨비〉는 친(親) 자본적인 성격을 지니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봉건주의와 계급을 연결해 사회 불평등을 미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자본의 힘을 과시하며, 자본을 신격화했다.

## **[References]**

- Choi, Ji-woon (2017). A Study on Classification in Male Characters' Methods of Wealth and Implication Shown in Romance Drama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JICC)*, 13.
- Eric Olin Wright (2005). *class theory*. Seoul: Hanwool.
- Karl Marx (2010). *Communist Party Declaration*, Seoul: Bookworld,
- Karl Marx (2012). *Capitalism I*, Seoul: Bibong.
- Kim Eun-sook (2016). *The Lonely and Splendid God-Goblin*, tvN, a total of 16 episodes, from December 2, 2016 to January 21, 2017.
- Louis Althusser (2007). *Reproduction*. Seoul: Dongmun.
- Michelle Xiong (2000). *Film and Sound*. Seoul: Min Eumsa.
- Moon Kang Hyeong-jun (2011). *The topography of the catastrophe*. Seoul: consonants and vowels.
- Robert Allen (1992). *Television and modern critical*. Seoul: Nanam.

## K-Culture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계승의 영속성과 자본의 신격화 문제

강성애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K-Culture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는 판타지 장르 문법을 사용해 낭만적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환생/불멸'과 '초능력' 모티프를 통해 계급의 영속성과 자본의 신격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 드라마에 드러난 사회 불평등의 문제, 친(親) 자본적인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드라마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이다. 그의 초능력은 종종 자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도깨비가 초능력을 행사하는 장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건물의 옥상이다. 자본이 없다면 김신은 초월적인 존재로 멋있게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처럼 이 드라마에서 초능력과 자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론** 드라마의 주인공 김신(도깨비)은 천 년의 역사 동안 불멸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도깨비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환생을 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 생명 양상은 도깨비가 자본가임이 드러나는 순간 계급 격차의 은유가 된다.

드라마에서 종의 가문은 대대손손 도깨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세대를 이은 이들의 충성은 '효'라는 명목으로 훈훈하게 묘사된다. 이런 서사를 통해 이 드라마는 계급의 불평등함을 교묘하게 미화시킨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판타지 요소를 재밌게 소비하면서 계급이 영원하다는 것과 자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국 <도깨비>는 사회 불평등을 미화시키고 친(親) 자본적인 성격을 지닌 TV 드라마라 할 수 있다.

**핵심어** K-컬처, TV 드라마, 자본, 계급, 영속성,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

이 논문은 2023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